

블루 컬러로 새롭게 태어난 독창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엘 프리메로

제니스 A386은 1969년의 혁신적인 엘 프리메로 칼리버를 탑재한 최초의 시계라는 강한 상징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리메이크 모델 그 이상인 모던한 CHRONOMASTER ORIGINAL은 0.1초 단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21세기 버전 엘 프리메로의 고성능과 이전 세대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통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한 아이콘, CHRONOMASTER ORIGINAL이 시그니처와 같은 세 가지 컬러의 다이얼에서 선명한 블루 컬러로 새롭게 탄생하며 현대적인 스타일로 귀환합니다.

CHRONOMASTER Original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로 재해석된 다이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신선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은 우아함과 모던한 매력을 결합해 정밀한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 오랜 시간 상징적인 모델로 군림해온 위상을 다시 한 번보여줍니다. 최초의 제니스 엘 프리메로 Ref. A386의 상징적인 중첩 카운터는 미드나잇 블루컬러의 배경과는 대조적으로, 기존의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루컬러 구성을 충실히 따릅니다. 실버 톤으로 제작된 0.1초 단위 챕터 링은 놀라운 대조 효과와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를 거쳐 디자인된 이 레이아웃은 바통 스타일의 아플리케 마커와 핸즈로 완성되었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의 아담한 3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상징적인 1969 ref. A386을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원본 청사진을 바탕으로 직접 모델링한 이 시계는 펌프 스타일 푸셔가 장착된 베젤이 없는 라운드 디자인, 경사진 측면, 각면 처리된 러그를 특징으로 합니다. 시계는 방사형 브러시와 폴리싱 처리된 표면의 결합으로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며, 5ATM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의 중심에는 상징적인 제니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모던한 새로운 버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3600은 5 Hz 주파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뛰어난 수준의 정확도로 0.1초 단위 단위로 정교하게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는 중앙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드를 통해 가능하며, 표준인 60초 대신 10초에 1회 회전합니다. 무브먼트는 또한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과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리저브를 특징으로 합니다. 정교한 구조를 드러내는 사파이어 케이스백은 제니스의 시그니처인 5-포인트 스타가 장식된 오픈 로터와 컬럼 휠을 자랑합니다.

블루 다이얼이 장착된 새로운 CHRONOMASTER Original에는 톤온톤 스티칭이 특징인 블루 컬러 송아지 가죽 스트랩, 각각 폴딩 클래스프로 고정 가능한 3-링크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CHRONOMASTER Original은 제니스의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티크를 비롯해 전 세계 공식 리테일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워치메이킹의 심장, 제니스

1865년 스위스 르 로클에 설립된 제니스는 개척 정신과 정밀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는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을 함께할 특별한 동반자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 온 제니스의 탁월한 헤리티지를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칼리버 135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의 통합을 통해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G.F.J 컬렉션에 칼리버 135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표를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년부터 현재까지, 르 로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심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

레퍼런스: 03.3200.3600/52.C910

핵심 사항: 0.1초까지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4시 30분 방향의 날짜 디스플레이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오토매틱

진동수: 시간당 36,000회(5 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0.1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10초에 1회 회전하는 중앙 크로노그래프 핸드 - 6시 방향의 60분 카운터 - 3시 방향의 60초 카운터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별 모양 로터

가격: 9,900 스위스 프랑 / 10,400 유로 / 10,300 미국 달러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5ATM

케이스: 38mm / 두께: 12.6 mm / 러그 간 길이: 46mm

다이얼: 블루 톤 선레이 패턴, 세 가지 컬러의 카운터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트랩 2개 포함: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스프가 장착된 블루 컬러 송아지 가죽 스트랩.

폴딩 클래스프가 장착된 메탈 브레이슬릿

